

“당신의 年 金을 연금 하겠소” 증권사 IRP 유치전쟁

(개인형퇴직연금)

12개 증권사 3분기 IRP적립금
3조716억원... 1년새 26.4% ↑
수수료 인하 등 유치 이벤트 풍성

증권사 간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경쟁이 올해도 뜨겁다. 연금 자산은 퇴직 시기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해 IRP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상품 적립금액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IRP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리계좌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또는 퇴직이나 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등으로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증권사의 IRP 적립금은 올 3분기 기준 3조716억원으로 1

〈증권사별 IRP 이벤트〉

증권사	이벤트 내용
미래에셋대우	개인연금또는 IRP 신규 고객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제공 개인연금 5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시드니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4박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 숙박권(1박)을 제공
NH투자증권	연금상품(연금저축계좌, IRP, DC 추가 납입)에 가입, 이전, 추가 납입 시 백화점 상품권
삼성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타금융기관에서 이전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신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계좌별로 5000원,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
KB증권	연금저축/IRP계좌 보유 고객이 회당 2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이체 약정을 신청할 경우 식품 기프티콘 증정 연금저축, DC/IRP 계좌에서 신규 가입, 계약 이전 또는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한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Liiv Mate 30만 포인트리 증정
한화투자증권	IRP를 신규 개설하고, 30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월 2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타월 세트와 치약+가글 세트 중 하나 지급 신규 개설 후 퇴직연금 펀드를 매수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모바일상품권 지급
현대차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불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상품권 지급

각사

년 새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IRP 계좌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 덕분이다. 증권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수수료 인하, 상품권·기프티콘 제공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IRP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 운용·자산관리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증권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지난달부터 삼성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타금융기관에서 이전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을 지급하고 있다. 또 신규 계좌 개설 시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IRP적립금(1조 100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개인연금 또는 IRP 신규 고객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제공하고 있다. 또 개인연금 5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시드니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4박6일), 포시즌스호텔서울 숙박권(1박)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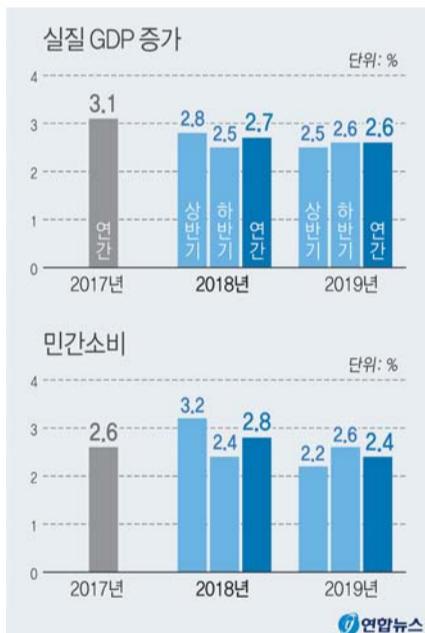
KB증권은 신규 IRP 계좌 신규 가입, 계약 이전 또는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한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리브메이트(Liiv Mate) 3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5일 IRP를 첫 출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대면 고객에 한해 추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퇴직금을 입금하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 또 신규 개설 후 퇴직연금 펀드를 매수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모바일상품권을 지

올 성장률 전망 2.7%, 내년 2.6%

제조업 성장 둔화, 건설업 부진에
KDI, 각각 0.2%p, 0.1%p 내려

〈KDI 주요경제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KDI가 올 상반기에 전망했던 올해 2.9%, 내년 2.7%에 비해 각각 0.2%p와 0.1%p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은 2.6%로 각각 내렸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투자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3.5%에서 -1.8%로, 건설투자 전망치는 -0.2%에서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3.4%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산업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또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

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했다.

또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1.6%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대외위험요인 중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 위험요인 중에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

유류세 인하분 즉시반영 직영주유소 찾기

유류세 15%인하 첫 날
휘발류값 6.1원 내린 1684.2원
경유는 7.0원 하락한 1488.8원

정부가 6일부터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한다. 이에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2019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 6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당 평균 6.1원 하락한 1684.2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면서 평균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경유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7.0원 하락한 1488.8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20.2원이나 떨어진 1563.2원으로 집계됐다. LPG는 평균 16.5%내린 917.9원, 서울은 28.4원 떨어진 950.9원이었다.

조선업 수주량 1000만CGT... 세계 1위 우뚝

총 발주량 2305만CGT 중 45% 차지
한국 조선업이 3년 만에 수주량 100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넘어서며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조선해양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선박 발주량은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305만CGT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방침이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주유소에서 리더당 휘발유 가격이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다. /손진우 기자 son@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장자우너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실시간 가격 동향 파악에 나섰다. 현장에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상황을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재고와 상관없이 즉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 직영주유소는 약 1만2000여개로 전국 주유소의 약 10%에 불과하다. 이에 직영주유소, 최저가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오

피넷의 접속이 폭주,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다.

일반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영주유소는 통상 1~2주 정도의 재고분을 쌓아놓기 때문에 이미 기존 유류세를 내고 기름을 사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 재고 소진까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 구조상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 등이 체감하려면 약 열흘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최근 3년간 1~10월 누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199만CGT, 2017년 2049만CGT, 2018년 2305만CGT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73만CGT 가운데 중국이 44%인 32만CGT로 가장 많은 일감을 따냈고 한국이 31%인 22만CGT, 이탈리아가 16%인 12만CGT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클락슨이 집계한 10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7781만CGT로 전월보다 113만CGT 줄었다. /정연우 기자 yw964@